

해맑은 양·알파카가 뛰노는 곳...5월에 떠나는 목장길 여행

초록 잎사귀들이 돌아오고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다. 5월엔 초원의 양들과 눈을 맞추며 서정적인 풍경 속을 한가로이 거닐어보자.
 한국관광공사는 24일 '목장길 산책'을 테마로, 5월 추천 가볼만한 곳을 발표했다. ▲경기 고양 원당목장 ▲강원 태백 몽토랑산양목장 ▲강원 평창 애니포레 ▲충북 증평 벨포레목장 ▲전남 화순 무등산양떼목장 등 5곳이다.

◆ '초록의 서정시'가 펼쳐지는 고양 원당목장

원당목장(원당종마목장)은 서울 근교의 산책·피크닉 명소다. 1984년 한국마사회가 경주마를 육성하고 사육할 목적으로 조성했던 곳으로, 현재는 경마관계자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7년부터 목장 시설 일부를 일반에 개방했으며, 이국적인 경치로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업무 시설이라 개방 구역이 제한되지만 목장을 즐기기에 불편함이 없다. 피크닉존, 포토존, 벤치 등이 있어 쉬엄쉬엄 돌아보기 좋다. 음식물과 돛자리 반입이 허용되며, 일반인 출입 구역에서는 어디든 피크닉이 가능하다. 단취사나 음주, 텐트 설치하는 불가하다.
 이용 시간은 수·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료는 없다. 조선 시대 세 능(희릉·효릉·예릉)인 서삼릉(사적)과 이웃해 있어 함께 돌아보면 좋다.
 고양에는 서오릉(사적)도 있다. 서쪽에 있는 다섯 능(장릉·경릉·명릉·의릉·홍릉)을 일컫는데, 나무가 울창해 봄날 산책 코스로 손색이 없다. 아이와 함께라면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가와지마을에서 발견된 별씨를 테마로 꾸민 고양가와지별씨박물관을 가봐도 좋다. 알파카농장, 비단잉어관, 고양민속박물관, 무박캠핑장, 난타교육관 등을 갖춘 배다골테마파크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 해맑은 유산양과 초원에서 활짝, 태백 몽토랑산양목장

2021년 강원 태백에 문을 연 몽토랑산양목장은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곳이다. 해발 800m에 자리해 맑은 공기와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초원에서 하얀 유산양이 노니는 목가적 모습이 평온하다.
 유산양은 온순하고 친화력이 좋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금방 어울린다. 먹이 주기 체험도 해볼 수 있다.
 몽토랑산양목장에서 자동차로 약 7분 거리에 태백 용연굴(강원기념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920m)에 있는 동굴이다. 구문소(천연기념물)도 독특한 지형이 눈길을 끈다. 암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동굴 모양으로, 그 아래 깊은 웅덩이가 있다.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시절을 보여주는 철암탄광역사촌도 가볼 만하다.



(태백) 몽토랑산양목장 초원에서 방문객이 유산양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_채지형 촬영



전남 화순 무등산양떼목장에서는 양들에게 먹이 주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시우 촬영.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 알파카가 뛰노는 비밀의 숲, 평창 애니포레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스키장 모나용평(옛 용평리조트)에는 동물과 숲이 조화를 이루는 애니포레가 있다. 발왕산 중산간에 자리한 애니포레는 알파카, 양 등이 뛰노는 목장과 수령 50년이 넘는 독일가문비 군락을 함께 즐기는 곳이다.
 알파카모노레일을 타고 올라 마주하는 애니포레에서는 가문비치유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고, 의자와 선베드 등에 앉거나 누워 피톤치드 삼림욕을 할 수 있다. 숲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는 목장을 찾아 알파카와 교감하는 것도 잊지 말자. 애니포레 매표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마감은 오후 6시다. 발왕산 정상부에는 모나파크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핫 플레이스 '발왕산스카이라이프'가 있다. 전망대를 중심으로 천년주목숲길이 조성돼 둘러볼 만하다.
 애니포레와 분위기가 다른 목장을 찾아보고 싶다면 대관령양떼목장이 제격이다. 유럽 감성이 가득한 티롤빌리지에는 인형·피규어 전시가 열리는 비엔나인형박물관이 있다.

◆ 동물과 다정한 교감, 증평 벨포레목장

충북 증평 벨포레목장은 종합레저휴양관광단지 벨포레리조트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곳이다. 보아염소와 오리, 거위 등이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하고, 너른 방목지엔 면양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다.
 먹이 주기와 승마 체험도 흥미롭다. 특히 평일 2차례, 주말 3차례 진행되는 보더콜리의 양말이 공연은 인기가 뜨겁다. 늑대로 변장한 사육사가 새끼 양을 훔치는 퍼포먼스와 영특하고 민첩한 보더콜리의 양말이 기술이 불거린다.
 거위와 오리, 염소가 런웨이를 누비는 듯한 동물퍼레이드를 즐기고, 최근 개장한 네스트조류관과 아외가금류장에서 청금강앵무, 공작, 금계 등 조류와 교감할 수 있다.
 벨포레리조트에는 익스트림루지와 요트, 제트보트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올해는 미디어아트센터와 모토티레노도 열 예정이라 더 풍성한 여행이

가능하다.
 인근 보강천미루나무숲은 날찍한 꽃밭을 가꾸어 사진 찍기 좋다. 건너편 서왕김득신문학관에서는 조선 중기 문인 김득신의 일대기와 마을 주민이 참여한 공공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다. 아끼자끼한 미니어처로 꾸민 증평자전거공원도 사진 촬영지로 인기가

◆ 어린 양과 눈 맞추며 산책...화순 무등산양떼목장

전남 화순 안양산 기슭에 자리잡은 무등산양떼목장은 미니당나귀와 무릎, 유산양, 돌산양, 토끼 등이 뛰노는 곳이다.
 축사를 지나면 150여 마리의 양들을 방목하는 초원이 펼쳐진다. 태어난 지 1년 남짓한 양들에게 건초를 주는 건초 먹이주기 체험장도 있다. 울타리 바깥에서 먹이를 주거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 자녀보다 신나서 먹이 주기에 빠진 부모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무등산양떼목장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면 인근 유적지로 가보자. 1500년대 지은 것으로 추정하는 영벽정(전남문화재자료)은 주변 풍광과 어우러져 운치 있는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정암조광조선생유배지는 종종 때 활약한 조광조가 생을 마감한 장소다. 화순고인돌유적에서는 선사시대 권력자의 무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 윤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최 정 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경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 위해 서하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활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